

거룩한 화



유경동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발끈’ 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 종종 충동적이거나 자제력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마음의 평정을 이루고 건강을 지키며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를 참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화’를 내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발끈 화부터 내고 후회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잠 15: 18)” 하신 성경의 말씀처럼 자주 화내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신앙의 문제로 부각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화’를 내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는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의 부조리’ 혹은 ‘모순’

에 직면하게 될 때 나타나는 실존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이 일치한다면, 사람은 언제나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과 외부의 정신적 또는 물리적 요구가 다르게 되면, 거기에는 불만이 따르게 된다. 즉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 직면하거나 외부의 자극에 의해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하도록 요구받게 될 때 ‘현실의 불합리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화’가 나는 것이다. 인격과 감정의 주체인 자아, 즉 ‘나’가 본래의 ‘나’로 자연스럽게 이해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상황에 빠진 낯선 ‘나’를 경험하게 될 때, 거기에는 모순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때 감정의 발로로서 ‘발끈’하게 되는 것이다.

‘화’의 정당성

‘화’를 내고도 후회하는 이유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처음 시작한 ‘화’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을 경우이다. 이와 같은 ‘화’의 감정에 치우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화’의 정당성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이유로 ‘화내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서에는 자신의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감정표현으로 ‘발끈’한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부엌일에 분주한 자신을 돕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빠져있는 것을 보고 ‘발끈’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말해서 자기를 돕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눅 10: 38-42). 예수님이 붙잡히신 후, 베드로는 방황하다가, 한 여종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발끈’하고 화를 내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마 26: 69-75). 바울도 회심 전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고, 기독교인들을 볼 때마다 ‘발끈’할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며 기독교인들에게 돌을 던졌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신앙인들도 종종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화를 낸다. 그런 화는 자신이나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감정만 상하고 공동체에 불화만 일으키는 경

우가 허다하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면서도 정당한 경우에는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인가? 물론 그렇다. 중요한 점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엡 4: 26)”라는 말씀처럼, 비록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그것이 자신이나 상대방을 파괴하는 ‘죄’가 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화냄’은 ‘죄’를 겨냥해야 한다. 즉 ‘화냄’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지만 ‘화’를 내는 기준이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넘어서 무엇인가 ‘숭고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려는 ‘발끈’에서 생기는 ‘화’는, 자신에게 ‘화’가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룩한 ‘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에 대하여 화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죄’의 문제에 민감해야 한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듯 즉각적으로 발끈해야 한다. 화를 내어도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가 아니라, 그 화냄을 통하여 자신과 이웃 사이에 신앙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깨닫고 즉시 통회하는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인들, 예수님을 못박고 후회하는 백부장과 병사들, 심지어 귀신들린 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 뒤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에 대한 즉각적인 ‘분냄’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나타내는 ‘화냄’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우리의 영혼을 세차게 흔들어 놓는 것이고 나아가 자신과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휘두르시며 양과 소며 돈 바꾸는 이들을 내쫓으시기도 하셨

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시장터로 변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자신을 삼켜 화낸 모습’을 보인 예수님의 ‘성전정화’ 사건은 오히려 믿는 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예수님의 ‘성전정화’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화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표현이 ‘화냄’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도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복’이라고 기록되어있다. ‘의’를 이루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표현에도 분명히 이 세상 부정의에 대한 ‘화냄’이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이 이 세상 속에서 ‘발끈’하고 화를 내야 할 내용들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다만 화를 굳이 내야 하는 원칙이 있다면, 지금까지 보았듯이 그것은 ‘자신의 죄성’에 늘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과 이웃에게 알리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열정 때문에 나타나는 ‘화’라는 감정의 표현은 ‘화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화,’ 그것은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불’과 같은 것이다. 그 불은 어둠을 몰아낼 수도 있으며 차가운 곳에 온기를 지피고 얼어붙은 것을 녹이는 귀중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은 소홀히 관리하면 주변의 사물을 강그리 태우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며 검은 재만 남길 수도 있다. 우리 안에 있는 ‘화’도 그런 것이다. 나의 죄와 공동체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인도하는 ‘빛’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자신과 이웃의 관계를 깨트리는 ‘화 덩어리’가 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사바기당